

예수님은 무엇을 갈망하시는가?

마태복음 21:18-32

여러분은 배가 고프면 어떤가요?

- 그냥 누워서 배고프고, "불쌍한 나"라고 신음하나요?

- 아니면 화가 나나요? 곰처럼 으르렁거리나요?

-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나요?

- 아니면 오히려 더 집중하고 결단력 있게 하나요? "지금 당장 음식을 찾을 거야. 오늘은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점심을 먹을수도 있어!"

음식 외에 2025년에 무엇을 갈구하나요? 2025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것을 갈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갈망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1. 신뢰하는 마음(공허한 종교적 관행이 아님)

오늘의 성경 구절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밤이 되면 약 3km 떨어진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 첫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군중들은 따라옵니다. 그들은 자기 겹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자 다윗의 자손, 구세주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1:21)

극적인 행동으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느니라"(13절)고 외치셨습니다. 이는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의 관습을 타락시켰습니다. 기도 대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 길 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시니 곧 나무가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여리고에서 맹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성전에서 저는 사람들을 고치시며, 세리와 창녀를 용서하신 예수께서 왜 작은 무화과나무를 말라죽이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분이 나쁜 날이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저도 충동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예수님, 물러나서 잠시 쉬신 다음, 마음을 고르고 더 나은 태도로 무화과나무 옆을 다시 지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했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이 어제 성전에서 모든 사람의 하루를 망쳤을 때, 우리가 그분께 이미 기회를 한 번 드렸다고 생각했어요!!"라고 덧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적으로 시장하셨지만, 그를 화나게 한 것은 육체적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어떤 것이 죽음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시기는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계절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유월절(3-4월) 때 무화과나무에 잎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덮인 "단일"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은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여야 합니다.

나무가 앞으로 뒤덮이면, 먹을 수 있는 무화과라는 이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열매가 있다는 것만 광고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게 하지만(잎이 있음) 헛된 약속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나무는 성전, 유대교 종교 생활의 중심지, 그리고 그 주변의 정치, 사법, 경제, 종교 제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의 위선의 가면을 벗기고 계십니다!

성전 제도는 ...

- 열매를 광고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호세아 9:10-17 참조).
- 의를 광고하지만, 타락했습니다.
- 택함받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선포하지만, 그들 자신의 길을 따릅니다.
- 생명의 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을 굶주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공허한 종교적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을 살 찌우고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종교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시는 것일까요?

- (1)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을 차단당하기 때문입니다.
- (2)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갑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윌링던을 공허한 종교적 행위에서 구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과 온라인에서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은 2025년에 영적 배고픔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가고, 스포츠 팀을 응원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필요 이상으로 먹고, 끝없이 일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끝없이 무언가를 찾을 것입니다 ...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0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산을 옮기다"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지나가다"(19:24)와 같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입니다. "의심하다"는 "주저하다, 불확실하다, 두 마음을 품다"는 뜻입니다.

강조점은 제자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들의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게 말하더라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와 제자들은 감람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아마도 이것이 그가 언급한 산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성전 산(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위압적입니다. 그것은 건축적 경이로움입니다.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종교적 산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유대교의 산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죽었듯이, 그들의 종교 체계도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올려져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지 40년 후, 성전 체계가 파괴되었습니다(서기 70년). 그것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파괴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구약성경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는 하나님과의 사랑, 신뢰 관계에서 태어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호세아, 미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체계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것을 보는 영감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라야 할 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대신, 하나님과의 삶에 대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로마서 16:17-18).

신뢰 관계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성서에서 명사 "믿음"은 243회, 동사 "믿다"는 241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성전 산의 위선을 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살아 있는 신뢰 관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로 표현되는 믿음의 신뢰 관계입니다.

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무거나? 무엇이든? “맥도날드여, 태평양에 던져져라!”라고 말하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할 만큼 믿음이 충분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이 마지막 주간의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1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님은 구하고 받는 것에 대해 무려 다섯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13-14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어떤 의미 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 (즉 성품과 뜻에) 따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7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성품과 뜻에 따라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갈망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아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인 산상 설교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할까요?

- 하나님과 그의 의를 향한 갈망. 만약 이 갈망이 없다면, 구하십시오.
- 온유함. 만약 온유하지 않다면, 구하십시오.
- 긍휼함. 만약 자비롭지 않다면, 구하십시오.
- 마음의 순결. 만약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구원을 구하십시오.
- 하나님을 마음의 보물로 삼음. 만약 다른 것이 마음의 보물이 되었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유로워지기를 구하십시오.
- 삶의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만약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안식하기를 구하십시오.
- 용서.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 달라고 구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충실함. 만약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간음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사랑과 충실함을 구하십시오.
- 원수를 향한 사랑. 만약 잘못을 당해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치유와 원수를 향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이 산들은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입니다!!

고대 중국 속담에 "산을 옮기는 것은 성품을 바꾸는 것보다 쉽다" 또는 "산은 옮길 수 있지만 성품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말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15:16에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성품의 산도 옮길 수 있다! 나는 내 영으로 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나는 네가 열매를 맺도록 세웠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나에게 구하라.”

저와 주디가 처음 선교사로 브라질에 갔을 때, 저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 사역은 브라질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임기는 3년 반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양육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더, 더, 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 성품이 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열매를 거의 보지 못했을 때에도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과 제가 살아 있는 신뢰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에 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2025년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신뢰하는 마음을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다른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2. 순복하는 마음 (종교적 자존심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에 대한 대화 후, 예수님은 성전 산 단지에 들어가십니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공공의 장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여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활동을 감독하는 제사장 계통의 고위 구성원입니다. "장로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통치 의회(산헤드린)입니다. 유대인의 삶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로마 통치 하에서 유대인의 삶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화가 난 "일"은 무엇입니까?

- 1-11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 왕,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 12절에서, 그분은 상업의 탁자를 뒤엎으시고 그들의 종교적 의식을 방해하셨습니다.
- 13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4절에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 15절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의 예배,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침묵시키라는 요청을 거부하셨습니다.
- 23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예수님은 종교적인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들의 권위 위에 두셨습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탁월한 대답을 하십니다.

-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즉시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그분을 고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행할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그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개로 부르는 권리를 주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여기서 주목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은 분명히 동료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열매 없는 종교를 버리고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가 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한 장면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7-8

-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사자이며, 메시아를 가리키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이 그의 계승자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분인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은 종교 지도자들을 곤경에 빠뜨립니다(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

- 25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 위에 서서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 사람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위, 직책의 권위, 명성, 통제력, 권력을 갈망합니다. 유대교는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이 가리킨 분(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산, 즉 교만의 산은 결코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의 산이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 손자 레온은 활발한 4살 소년입니다. 그는 성자가 아닙니다. 몇 주 전, 그는 자기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제 딸이 그를 방에 타임아웃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그는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 “감옥”에서 풀려난 후 제 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레온,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니?”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갈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 자신에게서 돌이켜 그분께로 향하는 회개의 길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맞추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길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길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맡기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길입니다.

2025년에 윌링던 교회가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길에 순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뢰하며 순복하는 마음을 갈망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

3. 순종하는 마음 (가짜 뉴스가 아닌)

28-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보여줍니다

28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청중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원을 상징합니다. 이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예언자들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을 불의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회개하여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불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명히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 31 ...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 32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 들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여.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라 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경멸하고 유대 사회의 밑바닥이라 부르는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여, 여러분은 요한이 선포한 “의의 길”을 목격하고도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음에도(요한의 설교로 나타난 가시적인 열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꾸게 했어야 했지만, 여러분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인 요한을 경멸하기를 택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당신들은 자신이 택함받았다고 당연히 여깁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먼지와 재 속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당신들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여,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세리와 창녀들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본으로 보여준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녀들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이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빈 말뿐인 예배(그저 말만 하는 것), 종교적 교만(권위 있는 직책을 지닌 것), 그리고 완고한 불순종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십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맡겨진 삶, 순복된 삶, 순종하는 삶에서 발견됩니다.

2025년에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종교적 위선, 교만, 그리고 완고함의 산이 제거되기를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순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성령과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풍성히 번영할 것입니다!!

호산나!!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묵상질문

1. 오늘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2. 당신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3. 당신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